

# 蔡萬植의 小說 研究

金 永 和

## I

우리가 오늘날 쉽게 求해 볼 수 있는 蔡萬植의 小說은 50篇 前後이다. 이것은 쉽게 求해 볼 수 있는 경우이고, 發表되었던 誌, 紙의 逸失로 求해 볼 수 없는 小說까지 합치면 그의 小說의 量은 增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蔡萬植의 小說을 研究할 때나 批評할 때 대체로 「太平天下」, 「濁流」, 「레이디메이드 人生」等 小數의 小說만을 選擇하여 論議하는 일이 反復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50篇 前後의 小說 가운데는 自傳의 人 小說이나 小品이 있어서 論議對象에서 除外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問題되지 않을 것도 있다. 그러나 餘他の 小說까지도 論議對象에서 排除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蔡萬植 小說의 眞髓를 究明하는데 未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課題는 文學史를 作品史로 昇華시키는 일일 것이다. 小說史의 경우에 있어서도 作家論의 領域을 벗어나 純粹한 小說史, 곧 作品史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小說 研究나 批評도 作品論의 接近을 통하여 이를 究明하고 그것을 小說史의 脈絡 속에 溶解시켜야 한다. 作品論의 接近은 한 作家가 남긴 小說들을 可能な 限 많이 論議對象으로 끌어다 놓고 이를 通讀, 分析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한다. 따라서 一部 小數의 小說만을 論議對象으로 했던 從來의 研究는 그만큼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만큼 이를 補完하기 위해서도 論議對象을 擴大할 必要가 있다.

또 하나는 蔡萬植의 小說에 대한 論議가 대체로 諷刺文學이라는 데로 歸着되고 있다. 蔡萬植 文學의 特徵을 諷刺文學이라고 論述하는 것에는 首肯이 간다. 그러나 그런 諷刺文學이 왜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 小說史 내지 文學史에 어떤 意味와 衝擊을 주었느냐 하는 問題는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다. 蔡萬植 文學에 投影된 諷刺의 色彩를 小說史의 意味의 抽出과 아울러 小說의 效果에 어떻게 寄與했느냐 하는 것을 究明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筆者는 前述한 두 가지 問題를 意識하면서 蔡萬植 小說의 眞髓를 究明하고 그것이 小說史에 어떻게 寄與하는 가를 살피 보고자 한다.

## I

蔡萬植(1902~1950)은 1924年 朝鮮文壇 12月號에 短篇「세길로」가 春園에 의해 推薦됨으로써 文壇에 데뷔했다. 이렇게 20年代에 데뷔하기는 했으나 同時代의 다른 作家와 比較하면 그렇게 활발한 作品活動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두 달 먼저 같은 薦者(春園)에 의해 추천을 받은 崔曙海가 20年代에 활발한 作品活動을 했던 것<sup>1)</sup>과 比較하면 20年代의 蔡萬植의 活動은 相對적으로 뒤떨어진다. 그의 데뷔작인 「세길로」는 材料와 取舍와 心理描寫가 뛰어나다는 點을 들어, 春園은 칭찬할 만한 솜씨<sup>2)</sup> 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의 다른 小說들과 比較해 볼 때 데뷔작다운 問題意識이나 特徵이 없는 作品이다. 素朴한 現實을 있는 그대로 描寫한 듯한 小品이다. 한 女學生을 두고 두 젊은 사람의 心理的 葛藤을 벌인다는 素朴한 世界는 蔡萬植의 日常生活의 經驗內容을 素朴하게 表現한 것 以上の 意味가 없다.

다음 發表된 「不孝子息」도 그의 兄을 머리에 두고 쓰여진 作品이라고 한다.<sup>3)</sup> 이런 陳述의 眞否는 접어둔다 하더라도 平凡한 日常事의 複寫 以上の 意味를 던져 주지 못하고 있다. 蔡萬植 文學의 特徵으로 指摘되는 諷刺의 色彩가 이들 小說에서는 거의 없고 現實意識도 상당히 平凡한 것이다. 그만큼 初期의 習作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年 뒤인 1929年 別乾坤 12月號에 發表한 「산적」에 오면 蔡萬植의 現實意識은 그 密度가 깊어지고 그의 獨特한 作品世界를 보여 주어 文壇 데뷔와는 關係없이 本格的인 作品活動은 이 때부터 시작 되었다.

이로부터 8.15後까지 그의 小說에 一貫되어 있는 것은 歷史와 現實에 대한 날카로운 意識과 批判이다. 蔡萬植은 이러한 意識과 批判을 基調로 當代 社會의 몇 階層을 小說의 登場人物로 내세워 그들이 어떻게 社會와 現實에 對決, 受容하는가를 보여 준다.

## (A)

蔡萬植은 첫째 1930年代 植民地時代를 背景으로 當代의 知識人을 登場시켜 그들의 苦惱를 보여 줌으로써 當代 社會와 現實의 意味를 追求하고 歷史에 대한 뼈아픈 反省을 보여 준다. 이 문제를 다룬 小說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산적(1929), 그 뒤로(1929), 양탈(1930),蒼白한 사람들(1931), 레이디메이드 人生(1934), 明日(1936), 痴叔(1938), 少妄(1938), 敗北者의 무덤(1939), 鍾路의 住民(1941) 等.

이들 小說에서 特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主人公이 모두 植民地라는 限界狀況 속의 知識人(思索人)이라는 媒에 있다. 이들은 植民地時代에는 比較的 教育을 많이 받은 階層이다.

1) 拙考: 崔曙海의 小說 研究, 國文學報, 6輯,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1974, 參照

2) 李光洙: “小說選後言”(朝鮮文壇 第3號, 1924. 12) p.78

3) 金容誠: 韓國現代文學新史探訪, 서울, 國民書館, 1973, p.188

또 開化期의 延長이 植民地時代라고 볼 때 先驅的 位置에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作中人物들은 現實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彷徨하고 있다. 우선 그들이 배운 知識을 活用할 舞臺가 없었기 때문에 職業이 없는 植民地 知識人으로 轉落하고 있다.

開港 以後 先進 文物과 接觸하면서 當時의 先覺者와 知識層이 크게 부르짖은 것이 教育이었다. 舊時代의 낡은 教育에서 벗어나 歐美式 教育—所謂 新學問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儒敎的 傳統 속에 살아 오던 一般民衆들에게 있어서 新學問은 驚異的인 것이었고, 新學問을 배워야 開化가 되고 開化가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思潮에 크게 呼應했다. 당시의 指導層 人士들은 群衆演說을 통해서, 또는 出版物에 依해서 이런 主張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1896年에 發刊된 「독립신문」에서 크게 強調한 것이 바로 教育問題였다. 때문에 당시의 詩歌에서도 이 點을 強調하는 內容이 상당히 많았다.

이와 같은 思潮는 그 後 新小說과 春園의 小說에도 크게 強調되었다. 그것은 開港 以後 1920年代까지 거의 30年 동안 이 民族이 이루어 놓아야 할 큰 問題로 意識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을 蔡萬植은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배워라, 글을 배워라...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境遇의 외침이 방방곡곡에서 소스라쳐 일어났다. 신문과 잡지가 붓어 닦도록 향학열을 고취하고 피가 끓는 지사들이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삼촌의 려를 놀리어 권학(勸學)을 부르짖었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상놈도 배우면 양반이 된다.」

「가르쳐라!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그나마도 못하면 교학이라도 해야 한다.」<sup>4)</sup>

1930年代 蔡萬植 小說의 作中人物들처럼 30前後의 知識人들은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依해서 教育을 받았다. 그들이 被教育時에는 꿈과 希望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教育을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의 꿈과 希望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겐—헌 객기를 부리지 말어요……있는 땅까지 팔아서 머리 속에다 학문만 처쟁었으니 그게 무어야? 써어 먹을 수도, 써어 먹을 데도 없는 놈의 세상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게 무어란 달이야?」

인제는 흥분조차 있어 버렸으나 범수가 늘 두고 염불하듯 두런거리는 말이다. 그는 어려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중학 이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였다.

자기 앞으로 땅마지기나 있는 것을 툴툴 팔아서까지 학자를 삼아 대학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비록 의식하지는 못했으나 천하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것이다.<sup>5)</sup> (加點 筆者)

이렇게 蔡萬植 小說의 作中人物들은 教育 받았다는 사실을 自嘆, 自嘲하고 있다. 大學을

4) 「레이디메이드 人生」, 新韓國文學全集, 서울, 語文閣, 1975, p.403

5) 「明日」. 1. 記全集, p.467

卒業한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意識하고 있는 것은 當時 蔡萬植의 現實意識의 斷面이라고 보아도 좋다. 時代의 흐름에 밀려 教育을 받긴 했지만 그 後의 問題에 대해서는 아무런 對策이나 豫見을 가지지 못했던 知識人의 意識의 投影이 곧 이들 作品에서 發見된다.

蔡萬植은 그 責任을 일단 歷史에 묻고 있다. 「피임을 받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움」<sup>6)</sup>을 당한 꼴이라고 그 責任을 歷史에 돌리는 것이 그 한 例가 될 것이다. 당시의 知識人들은 스스로의 意志보다 時代의 要請과 흐름에 따라 教育을 받았지만 일할 舞臺가, 그리고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부자사람허구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中間에 있는 人間들은 모두 허깨비야」<sup>7)</sup>라고 述懷하는 「明日」의 主人公 〈범수〉의 獨白은 기타 다른 小說의 作中人物들의 意識을 代辨한다. 技術을 배우지 않은, 썩 먹을 데 없는 지식만 얻고 職業도 없는 채 彷徨할 수 없었던 30年代의 植民地의 狀況을 蔡萬植은 이런 知識人의 彷徨을 통해 보여 준다.

특히 植民地 時代 人文, 社會科學 系統의 大學 出身들이 이들 小說의 作中人物의 主流을 이루고 있다. 이런 人物들은 日帝의 下手인이 되지 않는 한 新聞, 雜誌의 記者가 되는 것이 비교적 無難한 일이다. 이들 小說의 作中人物들은 대체로 新聞, 雜誌와 關聯된 人物들이 主流을 이루고 있다. 「산적」 「강탈」 「明日」 「少妄」 「레이디메이드 人生」 「蒼白한 사람들」 등의 作中人物들은 어떤 形式이든지 新聞, 雜誌와 關聯이 있으며, 「그위로」 「痴叔」의 作中人物은 社會運動을 하다 獄中生活을 겪는 人物들이다. 技能人이 아니라 思索人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據點을 잃고 있다. 때문에 이들 小說의 作中人物들은 富者도 못 되고 勞動者도 못 되어, 스스로를 「허깨비」라고 自嘲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知識을 「게(蟹)꼬리 만한 상식」<sup>8)</sup>에 지나지 않는다고 逆說의인 表現을 하고 있다. 求職難과 貧窮을 이겨는 그들의 知識이 쓸모 없는, 하잘것 없는 것이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一次 抽出하게 되는 것은 植民地時代 都市人의 窮乏相<sup>9)</sup>과 植民地教育의 모순에 대한 批判<sup>10)</sup>이다. 그러나 蔡萬植이 表現하고자 했던 意圖는 단순한 都市人의 窮乏相이나 植民地教育의 矛盾에 대한 批判에 그치지 않고, 이런 狀況을 낳게 한 歷史에 대한 意識이다. 暗暗裡에 技術者(勞動者)와 富者의 世上이지 그 中間에 있는 人間들 즉 知識人의 世上은 아니라고 表現하는 意圖는 무엇일까. 그것은 當代 社會와 現實에서는 知識人 곧 思索人은 발붙일 據點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意識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知識만

6) 「레이디메이드 人生」 上記全集, p.404

7) 「明日」 上記全集, p.469

8) 「산적」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서울, 文元閣 A-17, 1974, p.34

「양탈」 上記全集, p.54

9) 洪以燮: 「蔡萬植의 「濁流」」(創作과 批評) 27號, 1973, 봄, p.62

10) 金允植, 김 현: 韓國文學學史, 서울, 民音社, 1973, p.186

을 受容하는 教育을 받은 것에 대한 自己 反省이다. 이렇게 될 줄을 미리 豫測하지 못했던, 歷史를 보는 眼目이 狹小했던 韓民族 스스로의 自己反省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향학열을 고취한 놈이 누구냐?」<sup>11)</sup>하는 自嘲의 가락이나 皮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우는 셈이 되었다고 自嘆하는 것은 단순히 日本의 植民地教育에 대한 批判만을 表現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歷史에 대한 날카로운 意識과 反省, 그것을 知識人을 통해 表現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蔡萬植이 歷史에 대한 날카로운 意識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B)

蔡萬植의 두번째 關心事는 農民들의 生活樣相이다. 農村을 背景으로 하여 農民들의 生活을 그린 이들 小說을 通讀하면 대체로 다음 ①, ② 兩群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① 群 : 富村(1832), 農民의 會計報告(1832), 童話(1838), 病이 낫거든(1938)

② 群 : 암소를 팔아서(1930), 얼어 죽은 모나리자(1937), 추곡새(1938), 두 純情(1938), 龍洞宅의 경우(1938), 정자나무 있는 插話(1938)

같은 農民들의 問題이면서도 ①群의 小說들은 植民地時代 農村의 窮乏相의 問題를 追究하고 있다. 「富村」은 30年代 農民들이 税金과 負債와 小作料, 그리고 子女들의 學費에 시달리는 狀況을 그린 戲曲體의 小說이다. <전서방>은 税金 未納으로 面事務所에 呼出당하고, <박서방>은 負債 未償還으로 金融組合에 呼出당했으며, <이서방>은 肥料代 未納으로 肥料會社에 呼出당했다. 또 <최서방>은 子女들의 學費 未納으로 納付金 대신 負役을 위해 學校에 갔다. 이들은 税金, 負債, 肥料代, 學費 등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小作料에도 시달리고 있다.

蔡萬植은 農民들의 窮乏相과 困辱을 各各 다른 人物을 내세워 그 樣相을 보여줌으로써, 1930年代 農村과 農民의 生活相을 提示하고 있다. 이 小說에 登場한 <전서방>, <박서방>, <이서방>, <최서방> 등은 特定한 어느 個人이 아니라 30年代 植民地 韓國의 農民들을 象徴해 보여 주고 있다.

「農民의 會計報告」는 1930年代 小作農의 世界라는 點에서 「富村」과 비슷하다. 이 小說의 主人公은 5割이나 되는 小作料를 支拂해야 하는 農村에서 견디다 못해 故郷을 등지고 서울에 올라 와 지깃군이 되는 이야기다.

「童話」와 「童話」의 續篇인 「病이 낫거든」은 農村의 少女가 貧窮에 시달리다 지쳐, 都市의 職工으로 就職했다가 病을 얻어 歸郷한다는 이야기로, 역시 農村의 窮乏相을 보여 준다는 點에서 다른 小說과 비슷하다.

11) 「레이디메이드 人生」新韓國文學全集, p.409

이와 같은 作品世界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年代의 玄鎮健의 「故郷」 崔曙海의 「紅船」 「큰 물 진 뒤」 등의 小說에서도 다루어졌고 같은 30年代의 金裕貞의 「만무방」 「가을」 등의 小說에서도 小作農의 窮乏相이 그려져 있다.

이들 小說에서 다루어진 것은 蔡萬植의 作品世界의 幅을 擴大시킨 點은 있으나, 다른 作家가 追究한 것 以上の 進展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② 群의 小說은 같은 農村과 農民들의 世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本能的인 愛情의 問題를 그리고 있다. 農村에 사는 愚直하고 無識한 젊은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愛情의 世界와 風俗, 그리고 痴情이 이들 小說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 系列의 小說을 代表할 만한 것이 「쭈죽새」와 「정자나무 있는 插話」다. 이 小說들은 30年代의 農村, 特히 全羅道地方의 農村 젊은이들의 痴情의 세계를 보여 주는 하나의 例로 손꼽을 만한 作品이다. 愛情에 대한 原始的 本能과 이를 渴求하는 愚直한 行動과 그 悲劇이 그대로 赤裸裸하게 드러난다.

新小說 以後 韓國小說에서 愛情의 風俗을 다룬 小說이 적지 않다. 春園小說類의 知的 水準이 높은 人物들의 愛情의 風俗이다. 羅稻香 小說처럼 主人과 下人, 가진 者와 가지지 못한 者와의 그것을 그린 것도 있고 東仁 小說처럼 愛情을 本能的, 衝動的 側面에서 바라본 것도 있다. 그러나 農村의 젊은이들 사이의 痴情劇은 그린 小說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30年代의 金裕貞, 桂鎔默 등의 小說에서 無識한 젊은 男女의 愛情風俗의 斷面圖를 볼 수 있지만, 「쭈죽새」 「정자나무 있는 插話」의 小說 世界와는 서로 다르다. 金裕貞의 그것은 愛情風俗 그것의 追求보다 窮乏으로부터 脫出을 위한 副次的 行動으로서 그것이 취급되었고, 桂鎔默의 그것은 身體的, 身分的, 格差에서 오는 葛藤을 그린 것이지 蔡萬植의 小說처럼 農村 青年들의 痴情劇은 아니다. 게다가 金裕貞의 小說은 그 舞臺가 主로 嶺東地方이고, 桂鎔默의 그것은 主로 西北地方이다. 蔡萬植은 南部地方의 農村의 젊은이像과 愛情風俗을 提示하고 있다.

이 農民들의 生活樣相을 그린 小說에서는 놀라울 程度로 諷刺的인 語調(tone)가 없다. 「太平天下」나 「痴叔」等 諷刺的 色彩가 짙은 一連의 小說들을 읽은 讀者라면 이 系列의 小說들은 蔡萬植의 作品이라고 推測하기 어려울 程度로 전혀 다른 목소리와 表情으로 얘기하고 있다.

作家란 때로 여러 가지 다른 表情과 목소리를 지니게 마련인데, 蔡萬植의 경우에도 이 點은 該當된다. 이 系列의 小說과 知識人 小說과는 蔡萬植의 兩面을 보여 주는 例가 될 것이다.

## (C)

蔡萬植의 또 하나의 關心事는 植民地 時代 富裕層들의 世界다. 主로 地主들인 富裕層들을

登場시켜 그들의 意識世界를 보여 줌으로써 當代 社會와 現實의 斷面을 보여 준다. 이 系列의 小說로서는 이런 處地(1938), 太平天下(1938) 四號一段(1941) 등이 있다.

이들 小說의 主人公은 두 가지 側面에서 白痴의 要素가 있다. 첫째는 道德的 倫理的 側面에서 그렇고, 둘째는 知的 側面에서 그렇다. 때문에 思索人의 眼目에서 볼 때 가장 否定的 人物로 浮刻될 要素가 있는 人物이다.

이들의 關心事는 돈과 性과 世俗의 名譽와 權勢에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上記한 問題들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곧 그들의 理想世界로 나아가는 捷徑임을 主張한다. 때문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追求하고 있다. 그들이 屬하고 있는 社會나 現實이 그들의 欲望을 追求하는데 妨害가 되지 않는 限 그것이 植民地인 아니건 介意할 人物들이 아니다. 때문에 他人, 社會, 民族, 國家 등 個人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要素에 대한 基本的인 理解나 關心조차 없다.

이런 人物을 代表하는 것이 「太平天下」의 〈尹直員 영감〉이다. 그는 高利貸金과 卑賤 小作料를 通하여 財産을 蓄積한다. 世俗的 명예를 얻기 위해 族譜에다 渡金을 해서 그의 先祖들을 政丞, 判書로 造作하는 한편 大金을 주어 鄉校의 우두머리인 直員 벼슬을 샀다.

그리고 孫子들에게는 郡守와 警察署長을 시키려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大金을 支拂할 用意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돌아 올 것을 期待하고 있다. 그의 意識世界를 支配하는 것은 이런 世俗的 欲望과 아울러 色스를 즐기는 일이다. 70老人이 10代 少女와 더불어 性戲를 즐기려는 일이 反復된다거나, 男女의 關係는 雌雄의 意味로만 해석하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倫理나 道德이니, 體面이니 하는 것에는 아예 白痴인 만큼, 며느리와 딸과 손자들이 있는 집에 거리의 女人을 끌어 들이는 것쯤 兪할 일도 못되고, 며느리를 향해서 口에 담기 어려운 「짜 찢을 년」<sup>12)</sup>이라는 욕설을 거침 없이 내뱉는 人物이다.

知的 認識能力이 白痴에 가깝다는 것은 鄉校의 우두머리인 直員의 집을 통해서 「대체 거, 공자님허구 맹자님허구 팔씨름을 하였으면 누가 이겼으요?」<sup>13)</sup>하는 한마디가 要約된다. 때문에 現實意識이나 歷史意識에 있어서도 白痴的 思考가 延長된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향을 지칩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재산이 있어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목숨 같은 말세(末世)년 다—지내가고요...자—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형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남은 수십만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sup>14)</sup>하여 주니,

12) 「太平天下」 上記全集, p.293

13) Ibid., p.309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으응?...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sup>14)</sup>

이러한 歷史나 時代(現實)意識은 비단 尹直員 영감 뿐만 아니라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四號一段」의 〈朴主事〉, 「이런 處地」의 〈支店長代理〉, 「산동이」의 〈순천영감〉 등도 비슷하다. 때문에 「시대를 고민한다고 무슨 뽀족한 수」<sup>15)</sup>가 있는 것도 아니요 現實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妥協하고 適應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白痴들은 作家나 讀者들에게 否定的인 人物로 浮刻되고, 그들의 意識內容에 嫌惡感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이런 人物들이 肯定的으로 바라보는 問題는 作家나 讀者들에게 否定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植民地時代를 太平天下라고 意識하는 〈尹直員 영감〉의 意識內容을 批判한 것은 當代 社會와 現實에 대한 間接的인 批判이다. 富裕層의 世界는 아니지만 「痴叔」의 〈나〉에 대한 批判도 同軌의 것이다.

蔡萬植은 植民地 時代를 세가지 側面에서 接近하고 그 狀況을 表現하고 있음을 보았다. 知識人과 農民(主로 小作人), 그리고 富裕層(主로 地主)들을 登場시켜 그들이 植民地 現實과 어떻게 對決, 受容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蔡萬植이 植民地 社會와 現實을 觀察하고 그 觀察에 대한 反應과 表白이다.

여기서 우리가 發見하게 되는 것은 歷史와 現實에 대한 蔡萬植의 날카로운 意識과 그 批判이다. 이런 批判精神은 解放後의 一連의 小說에도 나타난다.

孟巡查(1946), 미스터方(1946), 歷路(1946), 논 이야기(1946), 도야지(1948) 등의 小說에서 抽出되는 것은 當代 社會와 現實의 混亂相과 歷史의 아이러니에 대한 作家의 깊은 意識이다.

日帝時 殺人強盜가 解放後 治安을 當하는 警察官이 된다는 이야기(孟巡查)나, 無識한 신기료장수가 美軍 通譯이 되어 勢道를 부린다는가(미스터方), 日帝의 下手人이었던 者가 解放後에는 愛國愛族을 부르짖으며 國會議員에 立候補한다는(도야지) 이야기 등은 解放後混亂相에 대한 批判이며, 이런 混亂과 倒錯된 現實의 連續을 容納하는 歷史에 대한 批判이다.

만일 내가 北韓에 간다면, 나는 나무가 되고 그들은 나무가리를 자르는 剪枝師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나는 이곳(南韓)에서 살면서 실컷 그곳이나 이곳에서 잘못되어 가는 일들에 대해 욕이나 퍼붓고 살지...<sup>16)</sup>

이것은 解放後 여러 有名 作家들이 계속 越北할 때, 直接 述懷한 말이라고 한다. 잘못되

14) Ibid

15)

韓國短篇文學全集, p.187

人間과 思想과 그 文學”(韓國文學 8號, 1974, 7) p.308 再引



어 가는 일들에 대해 욕을 퍼붓겠다는 것은 그의 批判精神이 強烈함을 뜻한다. 그런 批判精神이 그의 歷史意識이나 現實意識의 基調가 되고 있으며 또 植民地時代의 作品이나 解放後의 作品에도 나타난 것이다. 小說이란 어느 意味에서 人生과 社會에 대한 批判이다. 그것에 충실한 作家가 蔡萬植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II

作家가 어떤 목소리(tone)로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그 小說은 特殊性을 띠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特히 金裕貞이나 孫昌涉의 小說에서도 볼 수 있지만 蔡萬植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蔡萬植 小說의 特殊性은 무엇보다도 그 諷刺的인 語調 때문일 것이다. 그의 歷史와 現實에 대한 批判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直說的인 批判을 했더라면 植民地時代에 그 批判은 더 많은 制約을 받았을 것이다. 또 讀者에게 주는 說得力과 感動의 幅도 좁아졌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므로 蔡萬植의 驅使한 諷刺的인 語調는 그의 小說의 效果를 깊게 하는데 크게 寄與했다.

小說에서 諷刺가 成立되려면 作家와 作中人物, 그리고 讀者의 三角關係가 有機的인 關係 속에 있어야 한다. 적어도 作家(話者)는 暗暗裡에 作中人物보다 知的 道德的 優越性을 믿고 있으며 심지어는 作中人物보다 判斷力이나 思想조차 優越性을 믿고 있다. 그리하여 作家(話者)보다 못한 第三者(作中人物)의 못난 點을 꼬집어 讀者(聽者)에게 보여 주어 이를 批判하도록 誘導한다. 그런데 讀者의 경우도 作中人物보다 知的, 道德的 水準에 있어서나 判斷力과 思想이 優越하다고 믿고 있을 때, 作家와 讀者는 隱然中에 한편이 되어 作中人物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비웃고 조롱하는 데서 어떤 滿足感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讀者는 作中人物을 통해서 스스로의 優越性을 確認함으로써 快感을 맛본다. 이렇게 作家와 讀者의 握手 속에 諷刺의 對象이 되는 人物 또는 社會現象을 批判하게 되는 것이 諷刺小說이다.

그런데 蔡萬植 小說에서 特히 知識人의 問題를 다룬 小說에서는 이 諷刺가 좀더 다른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이런 類의 小說을 읽으면 作家와 作中人物이 뚜렷한 差異를 느낄 수 없다. 「레이디메이드 人生」의 〈P〉나 「明日」의 〈범수〉나 「少妄」의 〈男便〉 等等은 作家와 여러 가지 點에서 類似하다. 때문에 이들 小說에서는 作中人物과 그들의 處地에 대한 諷刺는 多分히 自嘲의 가락을 담고 있다. 作中人物이 지니고 있는 知的, 道德的 判斷力이나 話者(作家)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느낌이 없고 또 作中人物들이 갇혀 苦悶하는 限界狀況을 作家도 함께 갇혀 괴로워 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作中人物은 30年代의 蔡萬植과 거의 同類의 人物들이요, 결국 蔡萬植은 自己의 苦悶을 이런 知識人을 내세워 吐露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텔리〉…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또는 조그마한 보통상식을 가진 직업없는 인텔리…해마다 천여명씩 늘어가는 인텔리…뺨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中略—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日帝時 9字 削除)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다.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테리요, 무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sup>17)</sup>

30年代의 無職 인테리를 「초상집의 주인없는 개들」이라고 揶揄하거나, 「조그마한 보통상식을 가진 人物」이라고 얘기하는 話者(作家)의 語調에는 다분히 自嘲의 가락이 있다. 作家와 作中人物은 同一한 環境과 處地에 있어서 對象에 대한 批判이 自己에게로 向하고, 따라서 自己諷刺의 性格을 띠고 있다.<sup>18)</sup> 이것은 第三者인 이 小說의 主人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類의 人物과 連帶感情과 連帶意識을 가지고 있다고 隱然中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 기껏해야 「보통 상식을 가졌다」느니, 게(蟹) 꼬리 만한 보통 상식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인테리를 揶揄하면서도 그들의 知識의 不足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諳事 該博한 知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當時의 時代狀況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結果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知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붙일 舞臺가 없는 現實을 迂迴적으로 批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明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當代社會에서는 教育을 받았어야 知識人이 발붙일 舞臺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그들의 어린 아들을 自動車 整備工으로 就職시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들 小說에 나타난 諷刺은 作家의 語調가 自己自身을 向한 自嘲의 가락으로 들려 그렇게 強烈하지 않다.

그러나 否定的 人物을 통한 現實意識은 그 諷刺의 語調가 本軌道에 오른 듯하다. 「痴叔」 「少妄」 「太平天下」 「孟巡查」 「미스터方」 「도야지」 등에 나타나는 諷刺은 아이러니가 가득 찬 文章을 통해 그 度를 深化시키고 있다.

이들 小說에서는 諷刺이 成立될 수 있는 三者가 나타난다. 作家와 讀者는 連帶感情을 가지고 그들보다 知的, 道德的 劣等 속에 있는 作中人物의 言動을 보면서 뒤에서 嘲笑하고 있다. 「痴叔」과 「少妄」의 話者는 作家가 아니라 作中人物이다. 時代의 現實意識이 白痴에 가까운 人物을 내세워 作家가 肯定的으로 바라 보는 人物을 罵倒하는 데에 獨特한 諷刺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作家와 「痴叔」의 〈아저씨〉와 「少妄」의 〈남편〉, 그리고 讀者는 暗暗裡

17) 「레이디메이드 人生」 新韓國文學全集, p.404

18) 申東旭: 韓國現代文學論, 서울, 博英社, 1972, p.131 參照

에 現實意識에 있어서 비슷한 感應을 보이고 있다. 當代現實이 어둡고, 暗澹해서 무엇인가 改革과 變化를 은연중에 期待하는, 現實에 滿足하지 못하는 人物들임에 비해서 作中話者인 <나>는 그 反對다. 植民地時代를 太平天下라고 豪言하는 <尹直員 영감>처럼 이들 小說의 話者는 植民地時代를 肯定하는 人物들이다. 이들의 植民地時代를 어떻게 意識하고 있으며, 그들의 希望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데 드러난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벌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깐 언제 한 십년만 더 있으면 한 밭천 들어서 마루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렇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가지고 나는 사십년 동안 예술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원원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원이면 최선 부자로써도 천석꾼이니 머 명명거리고 살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아 알아서 앞진한 자리를 플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中略—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中略—

그리고 나도 최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sup>19)</sup>

1930年代 植民地 現實을 理解하고 있는 讀者들은 이 小說의 主人公의 現實意識이 얼마나 白痴에 가까운 것인가를 알고 있다. 때문에 이 白痴의 發言을 통해 當代社會의 產物인 이런 盲目的 人間을 諷刺하고 있다.

이런 「痴叔」의 <나>와 같은 人物은 어느 特定한 個人만이 아닐 것이다. 植民地時代 흔히 發見할 수 있는 人物이요, 하나의 典型, 하나의 象徴的 人物이다. 더구나 이런 人物을 통해서 大學에서 經濟學을 專攻하고 排日的 社會主義運動을 하다 獄苦를 치르는 思索人을 「한참 당년에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하다 정역 살고 나와서 앓고 누워 있는」<sup>20)</sup> 人物이라고 揶揄하는 곳에 諷刺는 深化되고 있다.

「少妄」의 경우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男便>은 知識人이요, 當代現實에 絶望한 나머지 新聞社도 그만 두고 어둡침침한 방에서 讀書만 하는 人物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남편>을 精神異常이 있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精神이 맑지 못한 사람이 精神이 맑은 사람을 미쳤다고 強辯하는 곳에 諷刺가 이루어지고 있다.

「痴叔」의 主人公과 아울러 道德的 知的 白痴에 가까운 것은 「太平天下」의 <尹直員 영감>

19) 「痴叔」新韓國文學全集., p.422

20) Ibid., p.418

이다. 그는 時代의 白痴<sup>21)</sup>인 만큼 現實意識이나 歷史意識에 있어서조차 白痴 그대로다. 돈과 섹스와 世俗의 名譽와 權勢만을, 그것도 닫힌 社會인 植民地時代에 追求하는 것만도 讀者의 嫌惡感을 불러 일으킨다. 거기에서 70代老人이 10代 小女를 꺾어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아까운 돈을 주어 반지를 사주는 등 주착을 떨고 있는 場面은 그대로 하나의 戲劇的 場面이며, 돈을 주어 鄉校의 우두머리인 直員 벼슬을 얻어 놓고 直員으로 행세하는 것도 웃음거리다. 그러한 그가 선비들이 詩文을 짓는 자리에 나타나 「대체 공자님허구 맹자님허구 팔씨름을 하였으면 누가 이겼을꼬?」하는 한마디로 座中을 아연케 만드는 것은 諷刺의 極致에 이른다.

蔡萬植의 이러한 諷刺는 時代와 現實에 대한 批判의 意識 위에서 획득된 것이며<sup>22)</sup> 現實批判의 間接的 迂廻的 方法으로 諷刺의 方法을 擇할 것이다.

#### Ⅳ.

蔡萬植은 描寫보다도 叙述에 더 많이 依存하고 있는 作家다. 性格의 提示에 있어서도 直接的, 解說的 方法에 많이 依存해 있어 그의 作中人物들은 讀者에게 具體적으로 提示되지 못하고 抽象적으로 提示되고 있다. 이것은 直接的 表現方法이 갖고 있는 限界性<sup>23)</sup>의 結果다.

그의 代表作의 하나인 「레이디메이드 人生」의 主人公 <P>의 경우만 하더라도 <P>에 대한 話者(作家)의 說明은 記憶되지만 具體적인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다. 讀者 스스로 이 人物에 대한 具體的 印象과 判斷을 내릴 수가 없다. 讀者는 作家의 說明에 따라 그 人物을 認識하고 또 作家의 判斷을 그대로 受容하는 道理 밖에 없다. 때문에 登場人物과 讀者와의 사이에 作家가 介入해 들어 가 있어서 그 仲介役割에 따라 作品의 效果가 左右되고 있다. 이런 方法은 讀者의 知的 水準이 높을 때 그렇게 歡迎받는 方法은 아니다. 作家의 說明이 있어 쉽게 理解할 수는 있으나 作家의 說明外의 部分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人物을 提示함에 있어서 讀者의 想像力이 介入해 들어갈 餘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위에 作家가 자주 小說 속에 얼굴을 내밀어 불쑥 한마디 던짐으로써, 讀者의 判斷을 妨害하고 있다. 加點部分은 그 두드러진 예가 될 것이다.

21) 鄭漢淑: "崩壞와 生成의 美學"(民族文化研究, 第6號, 1972, 11) p.82

22) Ibid., p.85

23) The danger of a direct presentaton is that it tends to forfeit the vividness of drama and the reader's imaginative Participation. (Brooks and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p.169

진실로, 가장 이 세상에서 물인정한 사람일지라도, 업순이의 요만 겸손하고 가난한 야심을 갖다가 트집을 잡아 시비를 하며 방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실이라고 하는, 천하에 잔인하고도 악착스럽고도 박절하고도 냉혹하고도 가지가지로 그 죄많은 사람을 말고서는...) <sup>24)</sup>(加點=筆者)

「짜 젖을 년! ...아, 그녀는 끝시 무엇하러 밤낮 그렇게 싸—맹진다나?」

「모을라우!」

「옳다. 내가 모르네티 너가 알 것이나! ...짜 젖을 년! 그녀이 서방이 안 돌아부아 주님께 오두가 나서 그러지, 오두가 나서 그리여!」

「아마 그렇게비라우!」

관중이 없어서 웃어 주질 않으니 좀 섭섭한 장면입니다. <sup>25)</sup>(加點=筆者)

이런 方法은 金東仁의 小說에서도 자주 發見될 수 있는 것으로 小說의 效果를 半減케 하는, 별로 찬성할 만한 手法은 아니다.

게다가 그의 作中人物들은 主로 平面的人物이 主流을 이루고 있어서 平面의 人物이 갖는 여러 가지 屬性<sup>26)</sup>대로 讀者에게는 單純하게 받아들여진다. 平面의 人物은 登場하기만 하면 쉽게 알아 볼 수가 있고 또 오래 記憶될 수 있다는 長點도 있으나 그 單純性이 讀者에게 食傷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太平天下」가 長篇이면서도 多樣하고 立體的인 人物이 提示되지 않아 短篇이 擴大라는 印象을 주는 것은 <尹直員 영감> 한 人物에 焦點이 많이 주어졌고 또 그 人物이 單純性 때문이다. 이 小說이 提示하는 問題는 보다 立體的인 人物을 登場시켜 追求했더라면 더 깊이 파고 들었을 可能性이 있고 더 좋은 效果를 얻었을 것이다.

polit은 대체로 複合構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국새」等 몇몇 小說은 單純構成과 緊密構成으로 짜여져 있고, 이야기의 焦點도 한 人物에 固定되어 短篇小說로서 骨格을 갖추고 있으나 대체로 그의 小說은 複合構成과 散漫構成으로 짜여져 있어 中篇小說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太平天下」의 경우도 長篇小說로 看做되고 있으나 그 길이가 조금만 짧았다면 中篇小說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長篇小說이 갖는 多樣性이 不足하다. 따라서 蔡萬植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問題意識은 많은 反面 그것을 藝術作品으로 形象化하는 데는 그렇게 卓越한 편은 아니다.

24) 「病이 낫거든」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p.105

25) 「太平天下」 新韓國文學全集, p.298

26) E.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Edward Arnold LTD. 1958 (鄭炳祖譯, 小說의 樣相, 서울 新揚社, 4292(1959)) pp.74-79 參照

觀點은 대체로 全知的 觀點<sup>27)</sup>에 크게 依存되고 있다. 이 點은 餘他的 作家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의 小說中에서 比較的 佳作에 屬하는 「癡叔」과 「少妄」은 一人稱觀察者的 觀點<sup>28)</sup>을 채용했기 때문에 小說의 效果는 커지고 있다. 「癡叔」의 話者나 「少妄」의 話者는 時代意識에 있어서 白癡에 가까운 動物的·世俗的 人物이다. 이런 人物을 통해서 當代社會와 現實에 滿足하지 못한 知識人은 必로 取扱하거나 精神異常者로 取扱함으로써 作家와 讀者를 苦笑케 하는 效果가 있고 그것이 獨特한 諷刺의 效果를 얻고 있다.

## V.

위에서 檢討한 대로 蔡萬植은 30年代부터 解放後 混亂期까지 韓國社會의 斷面을 知識人과 農民, 그리고 高裕層들을 通해서 當代社會와 現實의 意味를 追跡하고 이를 批判했음을 보았다. 蔡萬植의 作家精神은 歷史에 대한 批判, 現實과 制度에 대한 批判이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그의 맑은 作家精神으로는 그가 살았던 當代社會의 否定的 側面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批判, 告發하면서도 直說的인 批判을 避하고 迂迴的인 諷刺의 方法을 擇하고 있다. 이런 諷刺의 方法은 小說의 效果를 가져오는 데에 寄與했을 뿐만 아니라 批判의 迂迴的 方法으로도 採用되었다. 植民地라는 限界狀況 속의 作家가 취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 하나가 諷刺的인 方法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35年 崔載瑞는 諷刺文學論에서 當代社會와 같은 混沌한 世界에 있어서 作家가 취할 수 있는 態度를 세가지로 要約했다. 受容의 態度와 拒否의 態度, 그리고 批評的 態度가 바로 그것이다. 現實과 社會를 肯定할 때 受容의 態度를 취할 수 있고, 그 反對일 때 拒否의 態度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批評的 態度는 그 中間의 立場이라는 것이다. 當代社會와 같은 過渡期에 있어서 作家가 취할 수 있는 態度는 現實을 바탕으로 하되 그 否定的 側面을 드러내 批判하는 批評的 態度가 必要하고 그 批評的 態度를 表現하는 것이 諷刺文學이라는 것이다<sup>29)</sup>

蔡萬植이 作家의 態度는 批評的 態度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살았던 社會를 完全히 拒否한 것은 아니지만 滿足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歷史와 現實이 그가 생각하는 方向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보았을 때 이를 作品을 通해 批判한 것이다. 그리고 그 方法이 諷刺的인

27) the story may be told by the omniscient author, or analytic author, the author who does undertake to present the working of the mind of one, or more, of the characters, and who may investigate and interpret motives and feelings. (Books and Warren: op. cit., p.659)

28) the story may be told by an observer who is, to greater or lesser degree, a participant in the action. (Loc. cit.)

29) 崔載瑞: "諷刺文學論" 崔載瑞評論集, 靑雲出版社, 1961, p.192.

라는 것은 그의 意識底邊에 現實을 改革하려는 意志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諷刺은 유모어와는 달리 改革의 意志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면<sup>30)</sup> 蔡萬植은 現實에 滿足하지 못하는 理想主義者임에 틀림없다. 이런 蔡萬植의 現實批判의 意志는 韓國小說史에 重要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17世紀初 許筠의 「洪吉童傳」에 나타난 것은 當代社會와 現實에 대한 날카로운 意識과 그 批判이며, 18世紀末의 朴趾源의 小說에도 그것은 繼承되었다. 特히 後者の 경우는 그 批判의 方法이 諷刺의 方法을 採擇했다. 李朝 兩班社會와 僞善에 가득 찬 兩班들을 批判한 그의 一連의 小說들이 갖고 있는 批判意志와 諷刺의 方法은 20世紀에 蔡萬植에 의해 再現되었다.

知識人을 通해서 現實을 批判했던 玄鎮健의 初期小說이 作品世界와도 一脈相通하는 것이 있어 蔡萬植의 날카로운 現實意識과 그 批判은 20세기 韓國小說史에도 貴重한 것이 될 것이다.

韓國小說에서 現實意識의 두가지 樣相은 金萬重의 「九雲夢」類의 作品과 許筠의 「洪吉童傳」에서 浮刻된다. 前者가 現實肯定의 바탕 위에 個人의 榮達을 꾀하는 兩班들의 理想的인 꿈을 그린 小說이라면 「洪吉童傳」이나 朴趾源의 「兩班傳」「虎叱」「許生傳」 등은 現實批判의 바탕 위에 改革의 意志를 보여 주는 小說이다.

現實이 암담하고 絶望의 일 때 現實批判의 意志가 담긴 小說이 說得力과 意味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蔡萬植 小說이 韓國小說史의 脈絡에 重要的 意義를 차지한다. 그것이 그의 小說技術의 多少 洗鍊되지 못한 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讀者들에게 애필해 오는 理由가 될 것이다

30) The intent of humor is always to provoke amusement; the intent of satire is to provoke reform. (Jaffe and Scott: *Stuolise in the Short St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299)

—Summary—

## A Study of Chai Man shik's Novels

by Kim Youn-hwa

Chai Man Shik (1902-1950) was a novelist who made his debut in the literary world in December 1924 and played an extensive literary activity mainly in 1930's.

In his world of writing, the society and social reality of the colonial period of 1930's in which he was active in writing was grasped through intellectuals, farmers (mainly tenant-farmers) and wealthy class (mainly landowners).

Accordingly, Chai Man Shik described how the society and social reality of the time was confronted and accepted by those characters in his novels which he made represent intellectuals, farmers and wealthy class.

The peculiarity expressed in his works is a keen sense about history and a critical mind about the society and social reality.

His method of expression is not an indicative disclosing but an indirective roundabout method with satirical tone by which he obtained the effectiveness of his writing and increased persuasiveness power.

Such a historical sense and critical will of Chai Man Shik had been appeared in the biographical story of "Hong Gil Dong" written by Heo Gyun at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in many novels of Pak Ji Won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in the early novels of Hyeon Jin Geon as well as in some novels of Choi Seo Hai, such as "Hong Yeom" written in 1920's.

This trend was reappeared in Chai Man Shik's novels in 1930's novels and this deserves great significance in a historical view of novel writing.

His criticism, instead of affirmation, of the society and social reality of his time, even if he was living in such a colonial period as 1930's, came from a deep bottom of his sound novelistic spirit.